

노동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3호 pp.65-88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1.21.3.003>

연구논문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이 부모의 실업, 노동시간 및 삶의 만족감에 미친 영향*

민규량**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시간연장보육정책이 영유아부모의 노동공급과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연장보육정책의 효과가 어린이집 공급률의 영향은 받지 않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연장보육비율이 1%p 증가할 때 영유아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약 0.1점가량 증가하는데 이는 평균값 대비 약 3%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연장보육비율이 1%p 증가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유아모의 실업률이 0.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시간연장보육정책이 영유아부모의 실업감소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맞벌이부모, 노동시간, 실업, 이중차분분석, 시간연장보육

논문접수일: 2021년 4월 5일, 심사의뢰일: 2021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21년 6월 8일

* 본 연구는 민규량의 박사학위 논문인 「영유아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중 셋째 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연구이다. 부족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님께 누구보다 감사하며 또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신 김대일 교수님, 김봉근 교수님, 홍석철 교수님, KDI의 이영욱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grm1002@ii.re.kr)

I. 연구배경

영유아부모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다양한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일·가정 병행에 어려움을 느낀다(이성림 외, 2012). 이들은 주로 기관 등의 양육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Cocharan and Brassard, 1979; 김송이 · 최혜영, 2007).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및 가족적 상황 등의 다양한 환경이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김숙령 · 윤다희, 2014) 따라서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맞벌이를 위한 보육정책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간연장보육은 특별히 중요하다. 김송이 외(2018)가 유희정 외(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한 영유아모 출퇴근시간 자료인 <표 1>에 따르면 정규 보육시간인 19:00 이후에 집에 도착하는 비율이 31.5%에 달하며 이들 중 약 20%의 영아모들이 19:30분 이후에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규보육시간 외의 시간에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모의 비율이 약 20% 내외라고 할 수 있다. 맞벌이인 영유아부모가 주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99.5%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시설 외의 추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표 1>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출퇴근시간

(단위: %)

| | 전체 | 출근시간(집을 나선 시간) | | | | | 퇴근시간(집에 도착한 시간) | | | | | |
|----|----------------|----------------|---------------|---------------|---------------|------------|-----------------|-----------------|-----------------|-----------------|-----------------|-------------|
| | | 7:30 이전 | 7:30~ 8:00 | 8:00~ 8:30 | 8:30~ 9:00 | 9:00 이후 | 16:00 이전 | 16:00~ 17:00 | 17:00~ 18:00 | 18:00~ 19:00 | 19:00~ 19:30 | 19:30 이후 |
| 영아 | 100.0 (509) | 19.7 | 16.7 | 30.1 | 14.4 | 19.0 | 8.3 | 9.4 | 15.6 | 35.0 | 11.5 | 20.0 |
| 유아 | 100.0 (632) | 12.6 | 13.4 | 26.1 | 22.9 | 24.9 | 9.1 | 11.0 | 18.5 | 33.6 | 8.0 | 19.7 |

자료: 유희정 외(2014); 김송이 외(2018) p.21 재인용.

44.5%로 매우 높다(김은정·이지혜, 2017). 즉 정규보육시간 외의 추가보육인 시간연장보육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필수적이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시간연장보육을 보호자의 욕구 및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정의한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나 사회 및 정서적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김미정·안영주, 2014; 김현진·윤상용, 2015)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영유아부모의 욕구나 편의에 도움이 되었는지 삶의 만족도나 경력 유지의 측면에서 살펴본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자녀의 오랜 시간 양육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자녀뿐만 아니라 영유아부모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아이의 양육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Leahy-Warren and McCarthy(2011)에 따르면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양육 관련 스트레스는 모의 행복한 삶 역시 좌우하며, 모의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이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Dorsey et al., 1999).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영유아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부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Abidin, 1995) 이는 영유아부의 삶의 질과도 관련이 높다(박은미·이석순, 2015). 특히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여 육아기에도 경직적인 근무시간에 노출되는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지원하는 시간연장보육은 영유아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연장보육이 영유아모의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실업감소 등에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도는 특히나 필요한데, 이는 사회적으로 영유아모는 자녀에 대한 주양육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상식에서 기인한다. 영유아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상당수는 업무시간의 경직성과 장시간 근로활동으로 인해 육아와 일 병행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김영옥 외, 2014; 류임량, 2009; 박기남, 2009),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자녀돌봄의 어려움은 저출산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육의 패러다임 역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고 국가가 자녀를 돌보는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은정 외, 2014). 반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노동환경의 유연한 운영은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자녀돌봄을 늦은 시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은 이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연구에 있어서 시간연장보육제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연장보육은 이 제도만 별도로 이용할 수 없다. 주간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저녁에도 보육을 맡길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결국 시간연장보육이 어떠한 기관에서 제공되는지의 결정여부는 해당 지역에 어떠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약 어린이집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공급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비율이 높다면 이 지역은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직관을 반영하는 지표가 바로 민규량·이철희(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급률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며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지표를 시간연장보육비율과 교차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시간연장보육률의 교차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자체가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여서 이들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공급률 자체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직관 때문이며, 특히 장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만큼 보육의 질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 속에서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점을 가진다. 첫째, 시간연장보육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대부분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영유아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존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7~20차를 이용하여 시간연장보육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지역의 부모들에 대한 제도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연장보육 이용과 영유아부모 특성 간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둘째, 영유아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제도적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시간연장보육이 기관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관 이용을 할 확률이 높은 지역, 즉 어린이집 공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넷째, 어떠한 시설에서 시간연장보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효과가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다섯째, 이러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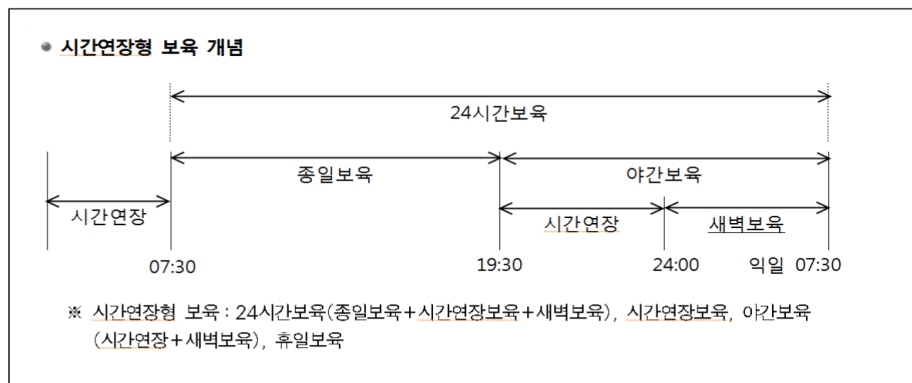
가 실제로 영유아모가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효과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모의 실업여부를 살펴본다.

이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시간연장보육의 개념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II. 시간연장보육의 개요

시간연장보육이란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연장형 보육서비스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8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 종일제 정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정규 보육시간 이후에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 이전, 오후 7시 30분~밤 12시, 토요일 오후 3시 30분~밤 12시까지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은 2020년까지 운영되었던

[그림 1]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2017), 『보육지원사업안내』, p.354.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며 본 연구는 이 중 시간연장보육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021년 이후에는 야간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보육의 형태는 시간연장보육의 개념과 동일하다.

<표 2>는 연도별로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개소 수 데이터이다. 단순히 데이터만 살펴보면 제도도입 직후인 2015년에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한 반면 이후에 조금씩 참여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제도가 축소되는 모양으로 보인다. <표 3>의 보육아동 수 추이를 보더라도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기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기관 개소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의 보육아동 수를 보

<표 2> 연도별 유형별 시간연장보육 제공 어린이집 개소 수

(단위: 개)

| | 총합 | 가정 | 국공립 | 민간 | 법인 단체 등 | 사회 복지 법인 | 직장 | 협동 |
|------|-------|-------|-------|-------|---------------|----------------|-----|----|
| 2015 | 8,582 | 3,633 | 1,692 | 2,584 | 173 | 355 | 136 | 9 |
| 2016 | 8,296 | 3,400 | 1,777 | 2,461 | 166 | 343 | 140 | 9 |
| 2017 | 8,245 | 3,274 | 1,928 | 2,385 | 162 | 339 | 149 | 8 |
| 2018 | 8,104 | 3,068 | 2,116 | 2,268 | 157 | 334 | 152 | 9 |

자료: 보건복지부(2019) 내부자료.

<표 3> 연도별 유형별 시간연장보육 제공기관 보육 아동 수

(단위: 명)

| | 총합 | 가정 | 국공립 | 민간 | 법인 단체 등 | 사회 복지 법인 | 직장 | 협동 |
|------|--------|--------|-------|--------|---------------|----------------|-------|----|
| 2015 | 39,479 | 15,477 | 5,501 | 14,486 | 1,022 | 1,732 | 1,209 | 52 |
| 2016 | 36,370 | 13,574 | 5,620 | 13,228 | 893 | 1,504 | 1,512 | 39 |
| 2017 | 34,744 | 13,055 | 5,540 | 12,255 | 792 | 1,459 | 1,611 | 32 |
| 2018 | 31,158 | 11,448 | 5,288 | 10,741 | 715 | 1,361 | 1,562 | 43 |

자료: 보건복지부(2019) 내부자료.

더라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간연장보육 아동 수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개소 수의 감소를 단순히 시간연장보육 수요 측면의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시간연장보육 기관 감소는 공급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맞물려있다. 김송이 외(2018)에 따르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일정 규모 이상 있어야 전담교사 채용 및 시간연장보육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충당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수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8,582개소 중 5명 이상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 수는 전국 720개소로 8.4%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2018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8,104개소 중 5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의 비율은 688개소로 8.5%에 불과하다.

시간연장보육 이용률이 낮은 것은 시간연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편견과 장시간 기관보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의 부진 등의 우려와 관련이 있다. 기관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의 44.1%는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추가 돌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유해미 외, 2014) 이러한 수요가 시간연장보육의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낮은 이용률과 높은 수요 간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은설 외(2016)에 따르면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응답자의 24.9%가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은 7.0%에 그치고 있어 수요가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해미 외(2014)에 따르면 본인 돌봄이 불가능하여 시간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87%는 다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은정·이지혜(2017)에 따르면 홈페이지상으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어린이집 운영은 9시~4시까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의 어린이집 시스템 한계에 대한 비판을 감안하면 서비스 공급여부와 실제 보육가능여부 간의 격차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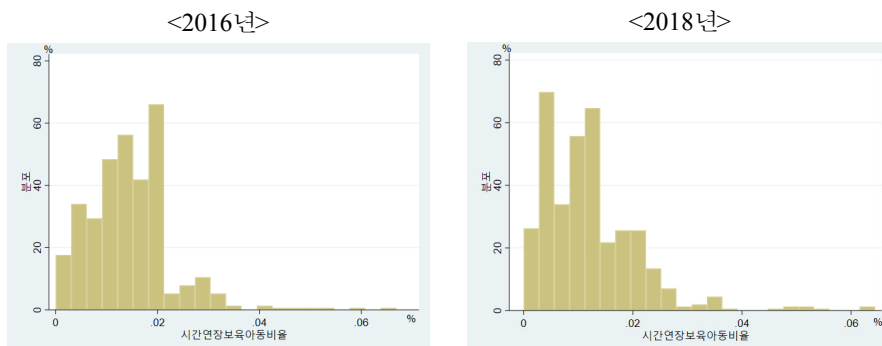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시간연장보육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유해미 외(2014)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들이 추가 돌봄 지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이용 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9.8%이며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20.3%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81.8%가 퇴근시간 이전에 아이가 기관에서 하원한다고 대답하였는데 결국 국가에서 이러한 보육의 보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부모, 베이비시터 등 개인 양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송이(2015)는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부모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다. 그 결과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94.5%는 주양육자의 직장업무 때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간연장보육의 이용이 무분별할 수 있다는 우려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들 중 57.7%는 주5일 이상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담당교사의 전문성, 보육프로그램, 아동의 안전문제, 급·간식 제공, 이용시간 등에 있어서 90% 전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회적 편견과 무관하게 서비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숙 외(2019)는 저녁돌봄이 양육을 공동으로 부담해주는 곳으로 특히 직장맘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주양육자로서의 스트레스나 죄책감을 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행동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육제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도별, 시군구별 아동 수 대비 시간연장보육아동의 비율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2016년에는 0.02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면 2018년에는 분포

[그림 2] 연도별, 시군구별 아동 수 대비 시간연장보육아동비율 분포현황



가 대체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국적으로는 시간연장보육 아동 수는 감소하였지만 시군구별로는 오히려 보육률이 늘어난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연도별로 변화하는 시간연장보육비율을 이용하여 지역별 시간연장보육비율의 변화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간근무 맞벌이 영유아부모의 노동시간,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기존의 시간연장보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시간연장보육의 필요성, 이용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서베이나 질적 접근을 통한 문제의식 고찰을 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샘플의 중립성을 보다 확보하였고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도입 후 영유아부모의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동패널조사 17~20차(2014~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야간근무하는 영유아모의 실업여부, 노동시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과 함께 그 배우자의 노동시간과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범도입한 2014년에 노동패널 생활시간조사에서 저녁 7시~아침 7시 사이에 출퇴근한 것으로 응답한 영유아모 중에서 분석 연도인 2015~2017년도에도 해당 직장을 여전히 다니고 있는 영유아모를 야간근무모로 정의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야간근무모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제도도입 후에 야간근무를 하는 영유아부모의 경우 이것이 시간연장보육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야간근무를 주로 하던 영유아부모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만약 이렇게 제도도입 전에는 주간근무였다가 제도도입 이후에 야간근무가 많아진 영유아부모를 샘플에 포함하게 되면 주관적 건강이나 삶의 만족도 변화가 노동시간 변화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도입 이전부터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하던 영유

아부모의 경우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제도도입 이전부터 야간근무를 하던 직장에 지속적으로 재직 중인 영유아부모라면 제도가 도입되기 전후의 노동시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는 영유아부모의 삶의 만족도나 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노동시간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장에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시간대를 이동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야간근무 여성을 식별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는 식별하기에는 데이터상 한계로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도입 전후에 시도단위의 거주지 이동이 없었던 영유아부모만을 샘플로 하고 있다. 시도단위의 이주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보육시설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이 변화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삶의 만족도나 노동공급 여건을 비롯한 많은 여건들이 변화하였을 것이다. 시도단위의 이동을 한 영유아부모를 샘플에서 제외하면 이러한 교란효과는 어느 정도 통제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단위의 이동의 경우 직장을 유지한 경우가 더 많았고 이는 생활권이 바뀐 비율이 높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샘플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이주 더미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독립변수로 지역의 아동 수 대비 시간연장보육비율을 이용하였다. 2014년 시간연장보육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의 취약보육을 의무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연장형 보육의 공급여부는 어린이집이 취약보육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이며 지자체의 수요조사 등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국지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제도를 선택할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노동수요가 적더라도 반드시 취약보육은 공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생성의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군구별 시간연장보육비율의 경우 개인의 노동이나 건강 등과는 다소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부모의

특성과의 내생성 문제가 적다. 다만 시간연장보육아동 수는 정원 수가 아닌 현 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감안한 시간연장보육비용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ext{시간연장보육비용}_{jt} = \frac{\text{시간연장보육아동 수}_{jt}}{0-5세아동수_{jt}} \times 100, j = \text{시군구}, t = \text{연도}$$

둘째, 실제 어린이집 이용여부 자체를 변수로 쓰는 대신 어린이집 공급률 변수를 이용하였다. 어린이집 공급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 입소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입소 확률을 반영하는 변수인 어린이집의 공급률을 이용하여 공급률이 충분한 지역에서 시간연장보육비용이 높아질 때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여부 자체가 영유아부모의 노동공급, 건강,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성이 높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부모만을 샘플로 이용하거나 이를 독립변수로 쓸 경우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군구별 어린이집 공급률 변수는 행정적 이유 등에 따라 다소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민규량·이철희, 2020)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직접적 내생성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어린이집 공급률 변수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변수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높다는 것은 질적으로 높은 보육시설의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린이집 공급률이 높은 것과는 차별적이며 조례 등에 의해서 다소 랜덤하게 공급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보육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민규량, 2019)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대상이 되는 영유아부모에 관한 요약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 지수는 매우 나쁨이 1점, 매우 좋음이 5점인 루카스척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초과이면 1, 고졸 이하이면 0으로 코딩되었으며 요약통계량에 따르면 고졸 초과 비율이 70.8%이다. 그 외에도 개인 및 가구단위의 통제변수로써 영유아부모 각각의 연령과 소득, 가구원 수와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전기 대비 이주 여부를 추가 통제하였으며 또한 여성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경기변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성 경제활동률, 실업률, 취업률, 기업 수를 통제하였다.

〈표 4〉 야간근무하는 영유아모와 배우자의 요약통계량

| 변수명 | 관측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모 연령(세) | 336 | 36.79 | 4.10 | 27 | 49 |
| 부 연령(세) | 336 | 38.76 | 4.51 | 27 | 57 |
| 가구원 수(명) | 336 | 4.08 | 0.87 | 3 | 7 |
| 자녀 수(명) | 336 | 1.37 | 0.53 | 1 | 3 |
| 이사여부(이사 X: 0, 이사 O: 1) | 336 | 0.15 | 0.36 | 0 | 1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세) | 336 | 4.13 | 1.84 | 0 | 7 |
| 가장 큰 자녀 연령(세) | 336 | 7.05 | 3.60 | 1 | 18 |
| 모 근무시간(시간/주) | 336 | 36.31 | 14.95 | 0 | 80 |
| 부 근무시간(시간/주) | 336 | 40.71 | 14.69 | 0 | 90 |
| 모의 월소득(만 원) | 336 | 171.5 | 159.3 | 0 | 1,400 |
| 부의 월소득(만 원) | 336 | 337.0 | 162.6 | 0 | 1,300 |
| 모의 삶의 만족도(매우 만족: 5) | 336 | 3.57 | 0.52 | 1 | 5 |
| 부의 삶의 만족도(매우 만족: 5) | 336 | 3.56 | 0.51 | 1 | 5 |
| 모의 교육수준(고졸 이상: 1) | 336 | 0.71 | 0.46 | 0 | 1 |
| 부의 교육수준(고졸 이상: 1) | 336 | 0.73 | 0.44 | 0 | 1 |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시간연장보육비율이 영유아부모의 노동시간,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후 어린이집 공급률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시간연장보육비율의 교차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연장보육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야간근무 직장에 근무하는 영유아모들이 퇴직하는 확률이 낮아졌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2014년에 야간근무하는 직장에 근무하였던 영유아모를 대상으로 분석 연도에 해당 직장을 그만뒀으면 1, 유지하고 있으면 0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우선 시간연장보육비율이 영유아부모의 실업여부와 노동시간,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어린이집의 공급률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간연장보육비율이 증가할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표 5>의 결과(1)에 따르면 시간연장보육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영유아모의 실업확률을 낮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영유아부모의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 5>의 (5)에 따르면 시간연장보육비율의 증가가 야간근무 직장에 근무하

는 영유아모를 배우자로 둔 영유아부의 삶의 만족도는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비율이 1%p 증가할 때 영유아부의 삶의 만족도는 루카스척도 기준으로 0.095점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영유아부의 삶의 만족도 증가는 보육부담 감소로 인해 스트레스가 경감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chran and Brassard(1979)에 따르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켰으며 긍정적 심리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한 김송이·최혜영(2007)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받은 부모는 심리적 안정이 형성되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표 5〉 시간연장보육비율 증가가 영유아부모에게 미친 영향

| 변수명 | (1) | (2) | (3) | (4) | (5) |
|--------------|---------------------|----------------------|----------------------|--------------------|---------------------|
| | 영유아모 실업여부 (%) | 영유아모 노동시간 (시간) | 영유아부 노동시간 (시간) | 영유아모 만족도 (점) | 영유아부 만족도 (점) |
| 시간연장보육비율 | 0.007 (0.041) | 0.081 (1.317) | -0.264 (1.348) | 0.013 (0.047) | 0.095** (0.047) |
| 영유아부 소득 | 0.000 (0.000) | -0.005 (0.005) | 0.019*** (0.005) | 0.000** (0.000) | 0.001*** (0.000) |
| 영유아모 소득 | -0.000 (0.000) | 0.022*** (0.005) | -0.009* (0.006) | 0.000* (0.000) | 0.000** (0.000) |
| 영유아모 연령 | -0.002 (0.008) | 0.215 (0.339) | -0.313 (0.347) | -0.002 (0.012) | -0.023* (0.012) |
| 영유아부 연령 | -0.003 (0.008) | -0.188 (0.335) | 0.141 (0.343) | -0.010 (0.012) | 0.001 (0.012) |
| 자녀 수 | -0.070 (0.048) | -1.810 (1.696) | 2.098 (1.736) | 0.066 (0.060) | 0.024 (0.060) |
| 가구원 수 | -0.001 (0.027) | -1.866* (1.046) | -1.214 (1.071) | 0.013 (0.037) | 0.040 (0.037)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019 (0.013) | -0.851 (0.551) | -0.239 (0.564) | 0.027 (0.020) | 0.024 (0.020) |
| 전기대비 이주여부 | -0.025 (0.044) | -2.684 (2.184) | 1.286 (2.236) | -0.061 (0.078) | 0.117 (0.077) |
| 절편 | 2.715 (3.699) | 177.4 (163.9) | -122.5 (167.8) | 1.239 (5.821) | -0.617 (5.813) |
| 부모 교육수준 통제 | 0 | 0 | 0 | 0 | 0 |
| 거주시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0 |
| 거주시도 경제변수 통제 | 0 | 0 | 0 | 0 | 0 |
| 연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0 |
| Observations | 125 | 336 | 336 | 336 | 336 |
| R-squared | 0.392 | 0.316 | 0.257 | 0.300 | 0.273 |

주: 1)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표 6〉 시간연장보육비율과 어린이집 공급률 교차효과가 영유아부모에게 미친 영향

| 변수명 | (1) | (2) | (3) | (4) | (5) |
|-----------------------|----------------------|----------------------|----------------------|--------------------|---------------------|
| | 영유아모 실업여부 (%) | 영유아모 노동시간 (시간) | 영유아부 노동시간 (시간) | 영유아모 만족도 (점) | 영유아부 만족도 (점) |
| 어린이집 공급률× 시간연장보육비율 | 0.120 (0.108) | 2.577 (2.633) | 1.510 (2.704) | 0.024 (0.094) | 0.097 (0.093) |
| 어린이집 공급률 | -0.153 (0.176) | -5.899 (4.089) | -2.237 (4.200) | -0.040 (0.146) | 0.063 (0.144) |
| 시간연장보육비율 | 0.046 (0.084) | -0.736 (2.225) | -1.104 (2.285) | 0.000 (0.079) | -0.020 (0.078) |
| 영유아부 소득 | 0.000 (0.000) | -0.006 (0.005) | 0.019*** (0.005) | 0.000** (0.000) | 0.001*** (0.000) |
| 영유아모 소득 | -0.000*** (0.000) | 0.023*** (0.005) | -0.009 (0.006) | 0.000* (0.000) | 0.000** (0.000) |
| 영유아모 연령 | -0.014 (0.011) | 0.104 (0.349) | -0.340 (0.358) | -0.002 (0.012) | -0.019 (0.012) |
| 영유아부 연령 | 0.008 (0.012) | -0.071 (0.345) | 0.175 (0.354) | -0.010 (0.012) | -0.003 (0.012) |
| 자녀 수 | -0.152* (0.077) | -1.920 (1.711) | 1.988 (1.757) | 0.064 (0.061) | 0.009 (0.060) |
| 가구원 수 | -0.014 (0.055) | -1.816* (1.048) | -1.222 (1.077) | 0.013 (0.037) | 0.033 (0.037)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014 (0.024) | -0.808 (0.552) | -0.231 (0.567) | 0.027 (0.020) | 0.022 (0.020) |
| 전기대비 이주여부 | 0.033 (0.066) | -2.921 (2.190) | 1.228 (2.249) | -0.062 (0.078) | 0.127 (0.077) |
| 절편 | 9.833* (5.651) | 177.3 (164.5) | -127.1 (168.9) | 1.176 (5.862) | -1.706 (5.798) |
| 부모 교육수준 통제 | 0 | 0 | 0 | 0 | 0 |
| 거주시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0 |
| 거주시도 경제변수 통제 | 0 | 0 | 0 | 0 | 0 |
| 연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0 |
| Observations | 158 | 336 | 336 | 336 | 336 |
| R-squared | 0.387 | 0.321 | 0.258 | 0.300 | 0.287 |

주: 1)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표 5>의 결과가 어린이집의 공급률을 감안하지 않은 평균적 효과의 결과라면 <표 6>의 결과는 시간연장보육비율과 어린이집 공급률 간의 교차효과가 영유아부모에게 미친 영향이다.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상위 50% 지역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와 시간연장보육비율 간 교차효과로서 <표 6>을 살펴보면 교차항들로부터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는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경쟁에

우선순위를 가지며 따라서 어린이집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도 대체로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표 7>은 이러한 결과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높아지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표 7> 시간연장보육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교차효과가 영유아부모에게 미친 영향

| 변수명 | (1) | (2) | (3) | (4) | (5) |
|--------------------------|----------------------|----------------------|----------------------|----------------------|---------------------|
| | 영유아모 실업여부 (%) | 영유아모 노동시간 (시간) | 영유아부 노동시간 (시간) | 영유아모 만족도 (점) | 영유아부 만족도 (점) |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시간연장보육비율 | -0.176* (0.0998) | -0.184 (2.395) | -1.090 (2.456) | 0.247*** (0.0841) | 0.141* (0.0845) |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 0.247 (0.174) | 3.348 (3.807) | 3.244 (3.903) | -0.309** (0.134) | -0.299** (0.134) |
| 시간연장보육비율 | 0.186** (0.0806) | 0.073 (1.572) | 0.080 (1.612) | -0.075 (0.055) | 0.047 (0.055) |
| 영유아부소득 | 0.000 (0.000) | -0.006 (0.005) | 0.018*** (0.005) | 0.000** (0.000) | 0.001*** (0.000) |
| 영유아모 소득 | -0.000*** (0.000) | 0.022*** (0.005) | -0.009 (0.006) | 0.000* (0.000) | 0.000** (0.000) |
| 영유아모 연령 | -0.010 (0.011) | 0.168 (0.342) | -0.333 (0.351) | -0.004 (0.012) | -0.023* (0.012) |
| 영유아부 연령 | 0.002 (0.012) | -0.173 (0.336) | 0.151 (0.344) | -0.011 (0.012) | 0.000 (0.012) |
| 자녀 수 | -0.158** (0.076) | -1.616 (1.708) | 2.274 (1.752) | 0.051 (0.060) | 0.008 (0.060) |
| 가구원 수 | 0.001 (0.054) | -1.972* (1.050) | -1.282 (1.076) | 0.015 (0.037) | 0.045 (0.037)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013 (0.024) | -0.810 (0.553) | -0.221 (0.567) | 0.028 (0.019) | 0.024 (0.020) |
| 전기대비 이주여부 | 0.038 (0.065) | -2.600 (2.193) | 1.266 (2.249) | -0.044 (0.077) | 0.123 (0.077) |
| 절편 | 10.16* (5.553) | 165.3 (165.1) | -123.5 (169.3) | -0.334 (5.794) | -0.993 (5.822) |
| 부모 교육수준 통제 | 0 | 0 | 0 | 0 | 0 |
| 거주시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0 |
| 거주시도 경제변수 통제 | 0 | 0 | 0 | 0 | 0 |
| 연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0 |
| Observations | 158 | 336 | 336 | 336 | 336 |
| R-squared | 0.396 | 0.320 | 0.259 | 0.320 | 0.285 |

주: 1)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률의 교차효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간연장보육비율 증가의 효과가 추가적으로 관찰된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모의 경우 시간연장보육비율이 1%p 높아질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실업확률이 0.19%p 증가하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업확률이 0.18%p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유아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육의 질이 평균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도 영유아모에서 0.247점, 영유아부에서 0.141점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영유아모 실업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시간연장보육비율의 증가가 영유아모의 실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육의 아웃소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실업하고 양육자로 전향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연장보육은 평균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며 또한 어린이집 공급률이 높더라도 큰 차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연장보육비율 증가에 따라 영유아부모의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며 이는 영유아모의 실업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어떤 유형의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이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강건성 분석

이상의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강건성 분석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우리의 결과가 공급률에 따른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미취업모를 대상으로 동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우리의 정책적 대상에만 국

한되어 관찰된 것인지 확인하였다. 참고로 강건성 분석에서는 기존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던 시간연장보육률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교차효과에 집중하였다.

〈표 8〉 강건성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상위 40%/하위 40%)과 시간연장보육 비율 교차효과

| 변수 | (1) | (2) | (3) |
|--------------------------|----------------------|----------------------|---------------------|
| | 영유아모 실업여부 (%) | 영유아모 만족도 (점) | 영유아부 만족도 (점) |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시간연장보육 비율 | -0.261** (0.121) | 0.270*** (0.0981) | 0.218** (0.0996) |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 0.341* (0.185) | -0.232 (0.145) | -0.271* (0.147) |
| 시간연장보육비율 | 0.212** (0.089) | -0.068 (0.061) | 0.007 (0.062) |
| 영유아부 소득 | 0.000 (0.000) | 0.000 (0.000) | 0.001** (0.000) |
| 영유아모 소득 | -0.000*** (0.000) | 0.000** (0.000) | 0.001*** (0.000) |
| 영유아모 연령 | 0.003 (0.012) | -0.002 (0.014) | -0.029** (0.014) |
| 영유아부 연령 | -0.003 (0.012) | -0.022* (0.013) | -0.008 (0.013) |
| 자녀 수 | -0.161** (0.076) | 0.077 (0.065) | 0.014 (0.066) |
| 가구원 수 | 0.051 (0.052) | 0.015 (0.040) | 0.058 (0.041)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017 (0.024) | 0.032 (0.021) | 0.033 (0.021) |
| 전기대비 이주여부 | 0.088 (0.064) | -0.049 (0.085) | 0.159* (0.086) |
| 절편 | 4.793 (5.826) | 0.935 (6.121) | -1.105 (6.212) |
| 영유아부모의 교육수준 통제 | 0 | 0 | 0 |
| 거주시도 효과 통제 | 0 | 0 | 0 |
| 거주시도 경제변수 통제 | 0 | 0 | 0 |
| 연도 효과 통제 | 0 | 0 | 0 |
| Observations | 137 | 288 | 288 |
| R-squared | 0.400 | 0.356 | 0.317 |

주: 1)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우선 첫 번째 강건성 분석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대해 기존에 50%를 기준으로 0과 1을 부여하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상위 40%와 하위 40%로 구분하고 상위 40%에 1을 부여, 하위 40%에 0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경우 50% 전후에 밀도 있게 모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공급률 50% 전후에서 이러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는 공급률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에 기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급률의 격차가 명확한 두 그룹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면 이러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강건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표 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상위 40%인 지역에서 시간연장보육비율이 증가할 때 실업감소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영유아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계수값도 <표 7>에서 도출했던 값들보다 전반적으로 커졌다. 실업률 감소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높을수록 0.26%p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유아모의 삶의 만족도는 0.27점이 올라갔으며 영유아부의 삶의 만족도도 0.218점 상승하였다. 이는 우리가 도출한 연구결과가 매우 강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결과들이 혹시 시간연장보육과 관련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여성 전체에게 유발된 효과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비율이라는 변수가 이 제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미취업모들에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간연장보육이란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영유아모에게서는 정책적 효과가 없어야만 우리의 결과가 정책적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집단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면 위에서 우리가 도출한 결과가 시간연장보육률과 연관된 관측되지 않은 다른 변수에 따른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해봐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분석결과는 정책의 결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표 9>는 미취업모와 미취업모를 배우자로 둔 영유아부를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교차효과가 유의하였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는 시간연장보육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의 교차항이 영유아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간연장보육비율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연구 대상인 야간근무 여성에게만 유의하며 미취업 여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결과가 다른 교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하는 영유아모 및 배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른 순수 효과라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9〉 플라시보 분석 : 미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시간연장보육비율 증가의 효과

| 변수명 | (1) | (2) | (3) | (4) |
|----------------------|---------------------|---------------------|---------------------|---------------------|
| | 영유아모 만족도 (점) | 영유아부 만족도 (점) | 영유아모 만족도 (점) | 영유아부 만족도 (점) |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시간연장보육비율 | | | 0.028 (0.038) | 0.037 (0.036) |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 | | -0.031 (0.067) | 0.079 (0.063) |
| 시간연장보육비율 | 0.026 (0.021) | 0.027 (0.020) | 0.012 (0.029) | -0.002 (0.027) |
| 영유아부 소득 | 0.001*** (0.000) | 0.001*** (0.000) | 0.001*** (0.000) | 0.001*** (0.000) |
| 영유아모 연령 | -0.004 (0.005) | 0.007 (0.005) | -0.004 (0.005) | 0.007 (0.005) |
| 영유아부 연령 | 0.003 (0.005) | -0.003 (0.005) | 0.003 (0.005) | -0.002 (0.005) |
| 자녀 수 | -0.037 (0.036) | 0.030 (0.034) | -0.036 (0.036) | 0.036 (0.033) |
| 가구원 수 | -0.026 (0.022) | -0.035* (0.021) | -0.027 (0.022) | -0.041* (0.021) |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000 (0.009) | -0.011 (0.009) | -0.000 (0.009) | -0.011 (0.009) |
| 전기대비 이주여부 | 0.042 (0.035) | -0.015 (0.033) | 0.041 (0.035) | -0.018 (0.033) |
| 절편 | 2.332 (3.049) | 1.145 (2.875) | 2.316 (3.051) | 1.130 (2.865) |
| 영유아부모의 교육수준 통제 | 0 | 0 | 0 | 0 |
| 거주시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 거주시도 경제변수 통제 | 0 | 0 | 0 | 0 |
| 연도 효과 통제 | 0 | 0 | 0 | 0 |
| Observations | 1,238 | 1,238 | 1,238 | 1,238 |
| R-squared | 0.106 | 0.111 | 0.106 | 0.119 |

주: 1)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본문 내용과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유연한 근로환경 제공이 어렵고 장시간 근무가 잦아 야간근무가 많은 노동환경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규보육시간 이후의 보육 공백이 큰 과제인 가운데 본 연구는 정규보육시간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시간연장보육이 야간근무를 하는 영유아모 및 배우자의 노동공급과 삶의 만족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시간연장보육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엇갈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의 질이 높은 곳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때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때에 엄마의 만족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시간연장보육과 보육기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야간근무직장에 근무하는 영유아모의 실업확률을 낮추거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곳에서 시간연장보육률이 높을수록 영유아모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떠한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지가 영유아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매년 시간연장보육률이 감소하는 추이 속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시간연장보육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 내에서 실시되는 시간연장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영유아모들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이 높고 저녁까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이에 준하는 신뢰성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급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립이 아닌 민간 시설들에 대한 전문성 및 질 높은 서비스 담보 등을 통해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 도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시기가 2016년 하반기로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간연장보육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에 가능하다면 이들 자녀들이 영유아기를 벗어났을 때에도 영유아모의 경력이 유지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장기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야간근무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개선이 정확히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경로분석까지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향후 후속 연구들에서는 시간연장보육의 제공이 직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연관 있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대상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구 지역별로 관측치가 많지 않은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샘플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표본들은 250여 개의 시군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야간근무가 잦은 업무를 하는 맞벌이 여성이 많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야간근무가 많은 특정 시군구에서 표본이 많은 형태의 데이터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나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샘플을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 논리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미정·안영주(2014). 「경기도 휴일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송이(2015). 「서울시 맞춤형보육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송이·이혜수·임밝네(2018).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돌봄 지원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송이·최혜영(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

- 지』 45 (8) : 1~11.
- 김숙령·윤다희(2014). 「사회적지원이 영아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8 : 41~62.
-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설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지혜(2017).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이진숙·최인선(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진·윤상용(2015). 「맞춤형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90 : 131~157.
- 류임량(2009).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전이(work-to-family spillover)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 연구」. 『페미니즘연구』 9 (2) : 119~156.
- 민규량(201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경제학연구』 67 (3) : 111~163.
- 민규량·이철희(2020). 「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노동경제논집』 43 (4) : 144~177.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갈등 연구: 연령 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 (2) : 37~71.
- 박은미·이석순(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유아보육·보육복지연구』 19 (2) : 271~294.
- 원종숙·송시현·김성길(2019).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직장맘의 여유시간이 삶의 질에 주는 의미 탐구」. 『미래교육연구』 9 (2) : 21~41.
- 유해미·배윤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 외(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성림·성미애(2012).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본 영유아 자녀돌봄 및 교육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 (6) : 23~37.

보건복지부(2017). 「보육지원사업안내」.

Abidin, R. R.(1995). “Parenting Stress Index : Professional Manual”. Lutz,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chran, M. M., and J. A. Brassard(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3) : 601~616.

Dorsey, S., K. Klein, R. Forehand and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 : 295~305.

Leahy-Warren, P. and G., McCarthy(2011). “Maternal Parental Self-efficacy in the Postpartum Period”. *Midwifery* 27 (6) : 802~810.

The Effects of Time Extended Childcare Policy on Parents' Unemployment,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Min, Gyuryang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time extension childcare policy implemented at child care centers for dual-income couples on labor supply and life satisfaction. The paper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time-extended childcare policy is not affected by the supply rate of childcare centers, while i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supply of publicly funded childcare centers. Specifically, in areas where the supply of publicly funded centers is high, when the ratio of time-extended childcare increases by 1%p, the satisfaction level of infants' life increases by about 0.1 points, which means about 3%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Also, when the ratio of time-extended childcare increased by 1%p, the unemployment rate of infants and children decreased by 0.17%p in areas with a high supply rate of publicly funded childcare centers. The ideal suggests that the time-extended childcare policy requires a sufficient supply of reliable childcare facilities to reduce unemployment and enhance life satisfac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parents.

Keywords : working hours, unemployment, difference and differences, time extended childcare policy, dual-income couple